

“ 나의 유작은 나의 시신이고 마지막 공공미술은 시신 기증이다”

이 작품은 작년 가을 여성 플라자에서 열렸던 “가상의 딸”전에 출품했던 “가족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다”란 작품의 연장선 상에 있는, 가족주의 비판이다.

모친이 돌아가시면 모든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인다. 미국 이민간지 20년이 넘도록 먹고 살기 바빠 한번도 못나왔던 큰 형님 내외도 제까닥 달려온다. 부모님의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은 후례자식 중의 후례자식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는 시신이 주인공인 초상집, 장례식장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장례식은 가족 모임중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시신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정중히 모셔진다.

의과 대학에선 실습용 시신이 모자라 고민이란다.

연고 없이 죽은 행려병자 외엔 누구도 시신을 잘 내어 놓지 않으려 한단다.

유교 가족 주의의 전통이 시신 기증을 어렵게 한단다.

내 처와 나는 시신을 기증하기로하고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증 서약서를 다운 받았다.

아항~~그런데 유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네..

흠,.. 큰 딸과 상의를 해야겠군.

시신 기증에는 세가지 옵션이 있다.

1. 실습을 마친 후 시신을 수습하여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경우.
2. 실습을 마친 후 화장하여 뿔가루를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경우.
3. 실습을 마친 후 장기와 유골등이 표본으로 전시되는 경우.

아항 ~~표본 전시...이것이 나의 마지막 공공미술...